

시민 안전 위해 부실시공 뿌리 뽑는다

우범기 전주시장,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 점검으로 부실시공 원천 차단 나서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를 뿌리뽑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완산구 물왕말로 일원에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주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와 오수를 합류해 배출하는 방식을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1800억 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처리구역 17개 분구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우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 중 시공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품질 및 공사의 완성도를 꼼꼼히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본관 변형(침하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완산구 물왕말로 일원에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주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및 놀림 등) 상태 △본관 이음부 연결 상태 △침입수 및 유출수 발생 유무 △관로 파손 또는 균열 발생 유무 △연결관 접합 상태 등으로, 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통해 점검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관로 상태가 양호했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관 내부 이물질 및 접합 부위 이격 등 경미한 시공상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시는 현장 굴착을 통해 누수 여부를 확인했으며, 누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내부 보강을 통해 보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각종 공사 및 자재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와 더불어 시공 과정에서 시방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및 현장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우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공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부실공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부실공사 업체 입찰 제한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도 언급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점검도 우 시장인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공사의 품질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전주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NH농협 전주시지부는 지난달 29일 전주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하양진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인 ‘전주함께미(米)소(笑)’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주 함께미(米)소(笑)’ 동참

NH전북농협 임직원들, 독거노인 지원 나눔운동 성금 기부

NH전북농협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운동에 동참했다.

전주시와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NH농협 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는 지난달 29일 전주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하양진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인 ‘전주함께미(米)소(笑)’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NH전북농협 임직원들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500만 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권희성 기자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시 지역 7개 노인복지관에서 모금된 기부금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백미와 누룽지, 식료품 등의 꾸러미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와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주시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인 ‘함께미(米)소(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소비쿠폰을 활용해 민생소비쿠폰의 10%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1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1만 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전주시설공단, 신규 직원 대상 업무역량 강화 나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인사 1~2년 차의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명대 경영본부장과 신규 직원 21명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강원FC의 경기에 앞서 안전관리와 시설 점검 등 경기 준비 과정을 체험했다. 또 선수 대기실과 회의실 등 내부 시설을 돌아보며 시설 운영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입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배우며 업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며 임원과의 소통에 방점이 찍힌 자리였다.

직원들은 현장에 동행한 서명대 본부장으로부터 공단의 경영방침과 비전 등을 설명 듣고, 의견을 나누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전북 현대와 강원FC의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소통의 자리를 이어갔다. 서명대 본부장은 “MZ세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단 경영방침을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완주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없다”

전주시, 완주군민과 소통 나서

전주시가 완주군과의 통합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의 완주지역 설치 우려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시는 지난달 29일 완산구 상립동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홍보관에서 완주군민협의회와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완주군민과의 투명하

소통을 바탕으로 완주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는 참석한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시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550톤 규모의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사업과 매립 용량 추가 확보를 통해 매립장을 오는 206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 소개하며 일부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완주군 이전에 대해 이전설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무엇보다 주민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며, 완주군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전 설치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완주군민들과의 신뢰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국토부, 드론축구월드컵 준비상황 점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 개막이 불과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국토부와 함께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 중추도시인 전주에서 펼쳐지는 대회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날 현장실사에는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과 전북특별자치도 유엔영 전환산업과장,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본부장,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대한드론축구협회(KDSA), 월드컵 대행사(엠비씨플러스, 내비네트웍스)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실사단은 먼저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방문에 국비 70억 원이 투입돼 구축된 19종의 첨단 드론장비를 둘러보고,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개



막식과 시상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 일정과 운영 세부 계획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자리를 옮겨 주요 시설물 배치 계획과 내빈·관람객 이동 동선을 직접 확인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남부시장 복합문화공간 기획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는 전주 남부시장 내 복합문화공간 문화공간장 작당에서 8월 한달간 펼쳐진 하반기 기획 프로그램 ‘글?’ - 왜 우리는 글하는 걸까? 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북 청년 예술가 단체 씨앗(CART)과 협업해 기획된 것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적 불편함과 상처, 그리고 사회 속에서 마주하는 ‘글?’의 감정을 예술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평면 회화와 설치미술 등 청년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이 선보여 젊은 관람객을 중심으로 약 4000명이 작당을 다녀가는 등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또한 하반기 기획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워크숍의 경우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펼쳐졌다.

구체적으로 워크숍 첫날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의학자인 이호 전북

대 의과대학 교수가 초청돼 청년들과 삶과 죽음을 마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감정과 흔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심리극 전문가인 김영환 소장 이 즉흥 참여 방식의 심리극을 통해 참가자들의 내면을 끌어내며 눈물과 치유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워크숍 둘째 날에는 과학 콘텐츠 제작사인 깃불(GEEKBLE)의 윤수환 리더가 ‘AI와 인간 감정의 공존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은 강사는 참가자들과 가벼운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낯설고 불편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한 감정적 고통을 함께 탐구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이번 하반기 기획프로그램에는 2025 문화공간장 작당 신진에술가 공간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 작가들도 동참해 개별 전시를 선보였다.

/권희성 기자

제10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5년 9월 4일(목) 오후 6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출연진

사회-서정우

이태현

김민영

혜미

박영일

백영주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